

# 도·교육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

14개 시군 교장단·전문가 간담회... 아이들 일상 속 올림픽 가치 스며들 방안 논의  
편지쓰기·미니올림픽 등 학교 연계 참여형 프로그램 제안... 상호 협력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교육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과 연계한 유치 공감대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계의 시각에서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연스럽게 올림픽 정신을 체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주교육대학교 송지환 교수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교장단 대표 등 교육계 인사 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

능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유치 분위기 조성에 대한 교육계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학생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을 통해 올림픽의 가치와 정신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지환 전주교육대 체육교육과 교수

는 "IOC 위원에게 보내는 영문 편지쓰기 대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내 미니올림픽 등은 올림픽 정신이 아이들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실제 활용된 해외 사례도 함께 소개하며 실효성을 더했다.  
이외에도 △올림픽 역사 전시, △도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가치 교육 주간', △올림픽 종목 체험부스 운영 등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유치 홍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식 전북자치도 2036하계올림픽 유치단장은 "전주올림픽은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꿈을 심어줄 기회"라며 "교육 현장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을 가장 깊고 넓게 퍼뜨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과 함께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유치 열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승강기,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천공항 출입국장 등 대중과 밀접한 다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진행 중이며, 전국 CU편의점과의 홍보도 10월까지 이어진다.

## 익산시 일대, 폭염 대응 실태 현장점검

노홍석 행정부지사, 무더위쉼터 등 폭염 취약지 4곳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는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23일 익산시 일대 무더위쉼터와 쿨링포그 시설, 이동노동자쉼터,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지역 4곳을 차례로 방문해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 야외 노동자, 건설현장 근로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됐다.  
먼저 익산시 송하동에 위치한 물랑초경로당을 방문해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시설의 냉방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이어 모현공원 내 쿨링포그 시설을 찾아 운영 실태와 시민 이용 편의성을 점검했다.  
모현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쉼터에서는 생수와 응급약품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충분히 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를 살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청 건설현장을 찾아 고온 시간대 작업 중지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가 23일 익산시 무더위쉼터와 쿨링포그 시설, 이동노동자쉼터,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지역 4곳을 차례로 방문해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여부, 휴식시간 보장, 폭염 대응 수칙 이행 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노홍석 부지사는 "올여름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부서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도내 시·군, 유관기관, 의용소방대 등과 협력해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점검, 취약계층 건강관리,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교육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과 연계한 유치 공감대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 ‘사방댐’ 덕에 집중호우에 산림피해 없었다

남원·순창 등 산사태주의보 발령 지역, 사방사업 덕에 피해없어  
2025년 336억원 들여 사방댐·산림유역관리 등 4종·139곳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산사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지난 19일 전북 전 지역이 호우 특보가 발령되고, 16~19일 4일간 순

창 457mm, 남원 333mm 등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사방댐과 계류보전시설,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사방사업이 집중 시행된 덕분에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환경연구원은 올해 사방사업 사업량 139개소 중 상반기에 80%인 111

개소를 완료(사방댐 72개소, 계류보전 30km, 산지사방 9ha)함으로써 우기철 산림재해에 대비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재해이력지역 및 주민 생활권 인접지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한 결과라는 것이 산림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산림청과 협의 중이며, 시·군 및 지

역산림조합과 협력해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까지 사방댐 1,311개, 계류보전 729km, 산림유역관리 34개소, 산지보전 7,312ha의 사방사업을 시행했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황상국 도 산림환경연구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 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 사방시설 확충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한지문화 유·무형 유산 조사 본격 시동

내년 유네스코 유산 등재 대비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북 한지문화 유·무형 유산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지문화의 가치를 조명

하고 보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6년 한지문화가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심사될 예정인 가운데, 등재 전후를 대비해 전북에 뿌리내린 한지문화의 유형 및 무형유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지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등재 이후 전북 한지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전승·활용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관계자,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은 지역별 한지 관련

유·무형 자산 현황을 조사하고 국가유산 지정 가능 자원을 발굴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약 6개월간 진행되며,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향후 국가유산청 및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산 지정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충남, 집중호우 유입 해양폐기물 공동 대응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급강 하구 및 인근 해역에 유입된 해양폐기물(부유 쓰레기)의 신속 수거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급강 하구와 인근 해역에는 대량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되어 선박 통항을 방해하고, 해양오염 및 사고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171톤 규모의 어장정화선 '전북001호'를 활용해 해양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충남도는 131톤 규모의 '늘푸른충남호'를 투입해 수거된 폐기물을 육상 집하장으로 운반하였다.  
'전북001호'는 굴삭기와 해저경운장비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정화선이며, '늘푸른충남호'는 크레인과 쓰레기 운반 트럭을 갖춘 운반 전용선으로, 양도의 잡비를 효율적으로 분담해 신속하고 안전한 해양폐기물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만호 기자

2025년 2학기

성인(리더자)의 필수! 모집

스피치·긴장해소·시낭송·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자신감, 리더십, 시낭송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 김양옥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도문과 전임(교양과목)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경쟁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전주매일신문사 부사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기업체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BC, TVN 출연 및 경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사회복지사
- 저서 '30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 노하우' '행복한 스피치' 등



김양옥 교수

〈전북특별자치도내 평생교육원 각 지역별 모집〉

| 학교명          | 주요과정(매주 1회 수업)                            | 지역별(자유선택)          |
|--------------|-------------------------------------------|--------------------|
| 전주대학교        | 스피치기법과 리더십(금, 야간)                         | 전주, 완주, 진안, 무주     |
| 전주교육대학교      |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 스피치능력강화코스, 스피치능력강화코스(주, 야간) | 전주, 임실, 완주         |
| 우석대학교        |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능력강화코스(주, 야간)              | 전주, 완주, 진안, 무주     |
| 원광대학교(익산)    | 스피치기법과 리더십(주, 야간) 스피치능력강화코스(주, 야간)        | 익산, 김제, 논산, 장성, 무주 |
| 군산대학교(군산)    | 스피치기법과 리더십(화, 야간)                         | 군산, 서원, 부안, 김제     |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 스피치지도사(주, 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 야간)    | 정읍, 고창, 순창         |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 남원, 장수, 순창, 곡성, 구례 |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아)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9월에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